영남일보 The Yeongnam Ilbo
2007년 02월 01일 020면

‘만화방 미숙이’ 폐인까지 생겼어요

100% 순 대구産 뮤지컬 관객 호평
스토리·연기 탄탄 벌써 2000명 관람
주제곡 인터넷 상 급속 유포까지

대본·작곡·출연진·연출·의상·무대제작 등 100% 대구산 창작초연 뮤지컬 ‘만화방 미숙이’가 기대 이상의 호응 속에 순항하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옛 제일극장 ‘더 시티’에서 공연 중인 ‘만화방 미숙이’는 전체 37회 공연 중에 3분의 1이 지난 31일 현재 2천명 이상의 관객을 모으는 데 성공하고 있다.

특히 공연을 본 관객들이 또다시 극장을 찾아 2~3번씩 관람하는 ‘미숙이 폐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주인공 진수와 미숙이의 러브스토리는 물론 조역들인 달봉, 똘만이, 명자, 64세 최고령배우 장봉구역의 김현규 선생의 관객 심금을 울리는 연기 등 조역들의 두드러진 개성적인 연기에 영향입은 바 크다. 또 달봉의 극중대사인 “나와바 니!”는 관객들 사이에서 최고의 웃음코드로 유행어가 되고 있다. 또 주제곡인 진수와 미숙의 듀엣곡인 ‘사랑이란건’이 관객들의 호평을 받고 인터넷상에서 급속이 유포되고 있다.

기획팀은 지금추세가 이어진다면 최소 8천명 이상의 관객을 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작사인 뉴컴퍼니 이상원 대표는 “대구 뮤지컬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차기 작품으로 서커스와 마술이 혼합된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 곧 오디션을 통해 인적자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대구 창작 뮤지컬 ‘만화방 미숙이’가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름이 ‘미숙’인 관객에 50% 할인 이색 마케팅도 화제

#등장인물과 동일한 이름의 관객 할인= 지난달 16일 시연회때의 ‘미숙이데이’에는 미숙이란 이름의 관객 50쌍을 무료 초청하여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며, 현재도 미숙이란 이름의 관객과 만화방주인은 50%, 진수·미소·미원·봉구 등 등장인물과 동일한 이름의 관객도 동반 1인까지 입장료를 30% 할인해 주고 있다.

#관극회원 개발= 관극회원 개발을 위해 만화방이 소재라는데 착안해 즉석 뽑기를 하여 달고나, 쫀드기 등 추억의 먹거리를 나누어 준다.

#관극후기 모집= 만화방 미숙이 카페에 관극후기를 모집해 1주일에 2명을 선정하여 2매의 초대권을 선물한다. http://cafe.daum.net/newcompany053

#색다른 재미 이색 카메오 출연진= 2월부터는 신간배달원(대사 세마디)에 대구지역의 저명인사들이 카메오로 출연해 한층 관객의 관심을 끌 예정이다. 류규하 대구시의원, 홍종흠 전 문예회관장, 서한규 변호사, 류강국 MBC 여성시대 진행자, 서종달 도시건축 대표이사, 신경철 전 MBC 보도부장, 김진혁 동양화가, 박해수 전 문인협회장 등이 카메오로 나선다.

#재관람객에게 50% 할인= 재 관람을 원하는 관객의 신청이 쇄도하는바 이들에게는 50%할인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박종문기자